폭염 장기화에 '히트플레이션' 우려 커진다

광주 적상추·시금치 전월보다 18.1%·30.3% ↑
정부 3838개 품목 할인…신선농산물 수급 변수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남광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온에 따른 농산물 생육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본격화하면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대규모 가공식품 할인행사에 나서는 등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신선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물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적상추 상품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1216원으로 6월 1030원보다 18.1%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1183원과 비교하면 2.8% 높은 수준이다.

청상추도 100g당 1202원으로 한 달 전 1030원보다 16.7% 상승했다. 지난해 7월 1369원보다는 12.2% 낮지만 최근 들어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시금치의 오름폭은 더욱 컸다.

지난달 시금치 상품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895원으로 6월 687원보다 30.3% 뛰었다.

열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열무 상품 1kg당 평균 소매가격은 3246원으로 한 달 전 2927원보다 10.9%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4173원과 평년 4547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모든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은 아니다. 지난달 양배추 상품 1포기 가격은 3441원으로 6월보다 8.3%, 얼갈이배추 1kg은 2738원으로 17.6% 각각 하락했다. 수박 1개도 2만4693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1%, 참외 10개는 1만5551원으로 20.1% 내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양배추는 7.5%, 얼갈이배추는 31.1%, 수박은 16.8%, 참외는 25.3% 낮았다. 현재까지는 농산물 가격 전반이 급등했다기보다 품목별 작황과 출하량에 따라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반면 대파는 지난달 1kg당 3360원으로 전월보다는 3.7%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 3091원보다는 8.7%, 평년 3303원보다는 1.7%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다.

잎채소는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생육이 더뎌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다 저장기간도 짧아 산지 출하량 변화가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폭염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면 시설과 농경지 피해로 공급 차질이 확대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일부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나 평년보다 낮더라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농산물 가격은 기상 상황에 따라 짧은 기간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폭염 장기화에 따른 생산량과 산지 출하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 10곳과 함께 8월 한 달 동안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라면과 즉석밥, 냉동식품, 음료, 과자, 빙과류 등 모두 3838개 품목을 최대 57%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폭염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추와 시금치 등 신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낮추려면 할인행사와 함께 산지 출하량 점검, 비축 물량 공급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길어지면서 잎채소를 중심으로 산지 출하량이 줄고 있다"며 "기온이 더 오르거나 폭염이 장기화하면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폴란드 명문구단 후원…유럽 공략 강화

구르니크 자브제와 3년 파트너십…신공장과 시너지 기대

금호타이어가 폴란드 프로축구 명문 구단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폴란드 신공장 건설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현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 기반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금호타이어는 폴란드 프로축구 구단 구르니크 자브제(Gornik Zabrze)와 공식 타이어 파트너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폴란드 아레나 자브제에서 조인식을 열고 2026/27시즌부터 2028/29시즌까지 3년간 공식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했다.

1948년 창단한 구르니크 자브제는 폴란드 리그 14회 우승과 폴란드컵 7회 우승을 기록한 명문 구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에 따라 선수단 유니폼 소매에 브랜드 로고를 노출하고 홈경기 전광판과 광고보드, 구단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금호타이어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폴란드 오폴레 신공장 건설과 맞물려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매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판매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승 금호타이어 유럽본부장(부사장)은 "폴란드 대표 명문 구단과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지 축구팬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는 폴란드 프로축구 구단 구르니크 자브제와 공식 타이어 파트너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신세계, '에델코첸' 팝업 ㈜광주신세계가 오는 6일까지 50년 전통의 스테인리스 키친웨어 팝업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에델코첸'은 컬러 냄비, 프라이팬, 수저세트, 텀블러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는 스테인리스 브랜드로, 이번 팝업 매장에서는 10만원 이상 구매 시 멀티집게를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광주상의, 고용안정 지원 확대 나선다

근속·안착 지원금 최대 200만원…1248명 지원

광주상공회의소가 고용위기 업종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생활 안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상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전·고무 및 전·후방 연관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주 고용이음 위기 극복 프로젝트'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이음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과 '고용이음 안착 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재직부터 이·전직, 비자발적 퇴사까지 고용 전 단계에서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앞서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약 600명이 신청해 382명이 근속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규모를 1248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년 이상 재직자까지 넓혔다.

근속 장려금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광산구 소재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은 100만원, 3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광산구 외 지역 근로자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착 지원금 사업은 이·전직 유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해 재취업 초기와 구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지켜내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D램·낸드 가격, 역대 최고가 경신

PC용 범용제품 거래가 24달러

인공지능(AI) 수요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의 월평균 가격이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범용 D램 제품인 DDR4 가격은 한 달 새 14% 넘게 오른 24달러를 기록했고, 낸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30달러를 넘어섰다.

3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7월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4달러로 전달(21달러)보다 14.3% 상승했다. 2016년 6월 조사 시작 당시(2.9달러)와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것이다.

DDR4 평균가는 2025년 4월(1.65달러) 이후 올해 2월까지 11개월 연속 상승한 뒤 3월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렌드포스는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의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D램 업체들이 내년 PC용 D램 공급을 줄일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3분기 PC용 D램 고정거래가격이 전 분기보다 15~20%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